



04-09 우리들의 보통의 삶
 11 Hello 부산
 13 떠나요 제주도



당신이
 의미
 있습니다

vol.224

여름
 2023.

아동과 장애인,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사회복지법인 동행에서 계간으로 발간하는 소식지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동행
 사회복지법인 DongHaeng 1963

동행을 소개해주세요!

“내가 후원해보니까 동행 믿을만하더라”
“내가 후원해보니까 동행 사회복지 잘하더라”

가족, 친구, 지인에게
이렇게 동행을 소개해주시면
아동과 장애인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매월 만원이 가치있게 쓰이는 곳 사회복지법인 동행

개인정보	성명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계좌이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용카드	카드사		카드번호	유효기간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동의하며 CMS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 이체일은 매월 1일이며, 잔고가 부족할 경우 11일 또는 22일에 이체됩니다.

· 동행후원금은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후원신청서 작성 후 사진을 찍어 010-2344-0678로
문자나 카카오톡(@사회복지법인동행)으로 보내시면 더욱 편리해요!



QR코드를 스캔하면
온라인으로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약법 삼장



진나라 시대의 많은 법률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옥죄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 세 가지 법률만 시행하겠다는 한 고조 유방의 선언이며 불필요한 법률을 줄여 백성들을 편하게 하자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법이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률을 제정할 때는 보편 타당성과 일관성에 주의를 해야 하며 특히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을 제정함으로써 특정집단이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감수해야하는 법을 제정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최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두 개 법안이 그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500개가 넘는 법률이 있으며 지금도 많은 법률이 입법 대기 중인데 정말 필요한 법인지 꼼꼼히 살피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안 중 사회복지의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과연 사회복지를 조급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발의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하여 14개나 되는 법률이 시행 중에 있는데 이렇게 많은 법률이 필요한지도 의문인데 지금도 많은 법안이 입법 대기중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법률을 제정, 개정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3. 6.

사회복지법인 동행 대표이사 김홍용

인도기-난복한 동행
사회복지법인 DongHaeng 1963
2023.6. vol.224

발행인 김홍용 편집인 김도요 편집위원 김미애 디자인 박운지 발행 사회복지법인 동행
주소 59656 여수시 소라면 화양로 1953 전화 061-818-1953 FAX 061-685-3751
홈페이지 <http://www.together63.kr>

※ 소식지의 모든 사진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생애 처음 벚꽃 여행

글 김강자 (동백원 활동지원사)

처음 육이 씨를 만나던 날 들었던, 가슴이 찡해지면서 울컥해지는 첫마디. “도와주세요.”

육이 씨는 뇌병변 장애가 있어 수시로 찾아오는 강직 때문에 바닥에 누워서 생활합니다. 휠체어나 의자에 앉기도 힘든 상태로 집에서는 활동지원사가 들어오는 문과 창문만 번갈아 보는 정도이고,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어 활동지원사가 자주 체위를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47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깥세상 구경을 한 적이 없는 육이 씨에게 작년 꽃이 피던 어느 날, 출근 길에 벚꽃 가지를 꺾어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꽃을 가까이 보며 행복해하는 육이 씨에게 내년 꽃피는 춘삼월에는 꽃놀이를 가자 약속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올해 3월. 약속을 잊지 않고 육이 씨에게 꽃구경을 제안하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꽃구경이 소원이라는 육이 씨는 그날부터 나들이 가는 날까지 며칠 동안 설레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직이 심해 나날이 달라지는 체형 때문에 맞는 휠체어가 없어 유아차에 이불을 깔고, 혹시 모를 멀미에 대비해 멀미약을 복용케 한 후 활동지원사 3명과 육이 씨의 꽃놀이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양면부터 백야도까지 활짝 핀 벚꽃, 맑은 하늘, 푸른 바다를 보며 수다쟁이 육이 씨는 난생 처음 보는 멋진 풍경을 눈에 담기에 바빴습니다. 한참을 구경하고 사진을 찍고 나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육이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께 벚꽃 여행을 간 활동지원사들도 몽클해지는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내년에 또 함께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내년에도 육이 씨와 벚꽃 여행을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임금님의 초대

글 박수진 (가나헌 사회복지사)

한 밤에 경복궁 소주방에서 우리나라 전통 국악공연을 보고 임금님이 맞보던 수라상을 받아보신 분이 계실까요?!

살랑이는 봄 깊은 밤, 장애인의 날 이브. 임금님의 초대를 받은 인순 님과 저는 상궁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경복궁 별빛 야행을 다녀왔습니다.

고궁의 야간개장 뉴스를 보던 인순 님의 호기심 가득한 놀란 눈을 보며 ‘그래, 가보자!’ 결심 후 바로 온라인 예약 클릭! 인순 님의 간절함이 전달된 듯 곧이어 초대장이 날아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며 설레던 마음은 경복궁에 도착 후 우릴 맞아주는 옛사람들을 보며 놀라운 마음으로 바뀌었고, 경복궁의 건청궁에서 향원정까지 전문가의 해설을 들으며 걷던 우리는 ‘와~’ 감탄의 소리만 연신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이자 인순 님의 마음을 훌쩍 사로잡은 수라상 체험!

왕과 왕비에게 올리던 12첩 반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도숯수라상을 맛본 인순 님은 머리 위 하트를 무한으로 날렸습니다. 여행이 끝난 지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여행 사진을 보며 자신의 최고 표현법인 머리 위 하트를 연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별빛 야행을 통해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힘든 내색 하나 없이 함께 어울리고 즐기는 인순 님을 보며 사회통합을 위한 또 다른 계획을 세워봅니다.



오사카의 추억

글 장훈영 (동행빌리지 사회복지사)

송광행복타운에서 근무하는 정병수님께서 3월 5일~7일까지 2박 3일 동안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일본 오사카로 생애 첫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022년에 송광행복타운에 입사 후 성실하게 일한 병수님께 주어진 일본 연수의 기회!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에 병수님과 상의하여 바로 신청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선 병수님 여권부터 만들어야 해요.”

병수님과 여권 발급 신청을 위해 사진을 찍고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캐리어도 사고, 여행가서 입을 옷도 장만했습니다.

며칠 후, 발급한 여권을 찾으러 가는 길.

“아~ 다 끝났다. 이제!”라고 말하며 일본여행이 곧 다가옴을 실감하는지 함박웃음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출발 당일!

잘 보관해 두었던 여권과 캐리어를 챙겨 새로 산 옷을 입고 모임장소로 향하는 병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2박 3일 동안 일본 오사카 곳곳을 여행하고 온 병수님은 며칠 동안 입이 닳도록 자랑했습니다.

“온천이 따뜻하고 좋았어요.”

“초밥이 정말 맛있었어요. 회가 기가 막혔어요.”

“다음에는 같이 가요.”라고 행복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번이 병수님의 생애 첫 해외여행이지만, 앞으로도 두 번째, 세 번째 해외여행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더없이 행복한 생일

글 김은승 (동행빌리지 사회복지사)

“우리 분도, 생일이 곧 다가오는데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미영 누나가 분도 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먼저 연락해 주었습니다.

4월 20일은 일 년 중 단 하루뿐인 분도 님의 생일입니다. 생일파티를 계획하면서 분도 님께 물었습니다.

“분도 님, 생일에 만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이미영) 누나, (김혜자) 엄마, (김연심) 엄마, (노미하) 국장님.”

이렇게 해서 누나 한 번, 두 엄마들과 한 번, 국장님과 한 번 총 3번의 생일파티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분도 님은 1988년, 가족도,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채로 동백원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수녀님이 이름을 지어주셨고, 생일은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35년 전에는 분도 님 곁에 아무도 없었지만, 이제는 주변에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동백원에서 맺은 인연으로 누나가 되어버린 이미영 선생님, 엄마가 되어버린 김혜자 선생님, 김연심 선생님, 그리고 공공후견인으로 만나고 있는 노미하 국장님까지.

분도 님의 특별한 날을 축하하며 무려 3번씩이나 생일파티를 했습니다. 고마운 분들과 식사를 하고 차도 마시며, 생일날 함께하고 싶은 돌레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분도 님!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는 행복한 생일 보내봐요~”

분도 님의 행복한 생일은 지났지만, 일상을 생일처럼 매일매일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



선생님! 저 결혼합니다^^

글 이진욱 (삼혜원 퇴소자)

저의 어린 시절은 일반 가정의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엄마가 계시지 않고 아빠와 살던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삼혜원에 입소했습니다.

시설에 산다는 이유로 친구들의 따돌림을 당한 적도 있었고, 술 드시고 자주 전화하는 아빠가 원망스러워 애꿎은 생활방 선생님들께 반항하며 남들보다 힘든 사춘기도 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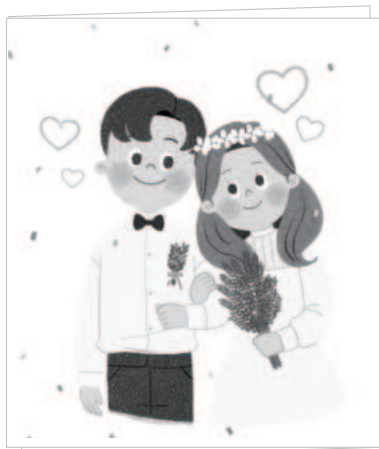
입소 후 피아노에 재능을 보여 학원에 다녔고 대회에 나가 여러 번 입상도 했기에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아빠의 죽음과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제가 처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그 마음이 점점 식어갔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여수 공업고등학교 기능영재반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남들보다 1년 늦게 들어갔지만 주말, 휴일 없이 수업에 전념했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한국동서발전에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퇴소 후 직장을 다니면서는 학창 시절 열심히 공부하지 못했던 아쉬움에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제가 살았던 삼혜원에 꾸준히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의 동생들이 덜 힘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삼혜원 아이들의 멘토로도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얼마전 여자친구와 함께 청첩장을 전달하고자 오랜만에 삼혜원을 방문했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저를 키운 건 오롯이 삼혜원이었습니다.

삼혜원과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지금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받은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초대

글 이정숙 (송정인더스트리 사회복지사)

어린 시절 다른 아이들보다 발달이 느려 다양한 소아 발달치료를 받았지만,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던 수완 씨는 학생 시절 내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배우고 익히는 데 보통 아이들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수완 씨의 부모님은 수완 씨를 대학교에 보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어디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고, 보통의 사람들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더욱 정성 들여 양육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수완 씨를 받아주는 회사는 없었고, 수완 씨는 자신을 점점 집에 가두고 집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수완 씨를 보며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든 수완 씨를 세상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싶었고, 일상적인 생활 리듬에 맞춰 출퇴근하며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걸 간절히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송정인더스트리를 찾았고, 직원이 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수완 씨는 송정인더스트리에서 직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최근에는 제주도로 직원연수도 다녀왔습니다.

가족들은 수완 씨가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잠을 자고 동료들과 즐겁게 여행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 했던 일이라 그 변화에 너무 놀라고, 가슴 뜨겁게 행복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보통의 사람들처럼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행복해질 수완 씨의 삶을 응원합니다.



특별한 가족들의 행복한 나들이

글 안지현 (가나헌 사회복지사)

5월, 특별한 가정의 달을 보낸 가나헌과 동백원.

가나헌은 지난 5월 26일 산 정상에 한 번도 오르지 못한 이용자들을 위한 이름하여 ‘정상에 오르다’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명절 민족 대이동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준비를 마친 뒤 목적지인 보성 주월산으로 출발! 주월산은 정상 부근까지 차로 접근이 가능했고, 정상 부근에 도착한 후에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 맨 꼭대기 정상 지점까지 등반할 수 있었습니다. 걸을 수 없어 온전히 두 발로의 등산은 불가능했지만, 지원 교사의 도움을 받아 난생처음 산 정상에 올라본 이용자들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동백원은 2팀으로 나눠 1박 2일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전남도립미술관에서 멋진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피톤치드 가득한 백운산자연휴양림에서 맑은 공기 듬뿍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캠핑에 빠질 수 없는 삼겹살 파티와 야간 오카리나 음악회, 아로마 마사지는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중증장애인들에게 행복한 5월을 선물해주신 남해화학(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Hello, 부산!

글 손행은 (삼혜원 사회복지사)

올해 삼혜원 아이들이 선택한 여행지는, 여수와는 다른 매력의 바다를 품은 부산입니다.

대가족이 가는 여행답게 아이들과 직원, 모두 71명이 7대의 차량으로 신나게 출발~ 아~ 설레요~

도착과 동시에 시원하게 내리는 비를 피하기 위해 롯데월드는 살짝 미뤄두고, 익사이팅 런닝맨 체험과 부산과학관을 둘러보고 맛있는 바비큐 파티로 첫날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은 방별로 계획한 코스로 해동 용궁사, 국제시장, 해변열차 등 개성 넘치는 여행지에서 미션을 수행하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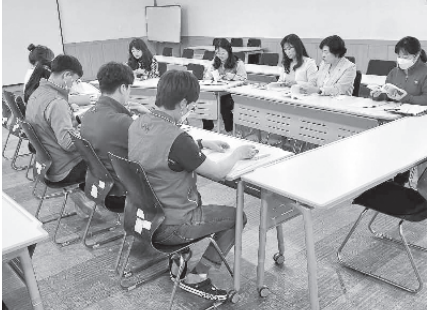
대망의 마지막 날! 롯데월드로 가는 차 안에서부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아이들. 신나는 놀이기구가 가득한 롯데월드는 사랑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꿈같은 2박 3일을 선물해 주신 (주)용호 기계기술 정성호 대표님, (주)동양 우종완 대표님, 조순이 후원자님, 김재엽 후원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기쁨, 성장하는 우리

글 황윤옥 (동백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동행은 (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의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 산하 시설 직원들은 매년 관심 주제를 선정하여 학습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며 전문가 초청 교육, 사례관리, 교재 학습, 워크숍 등의 알찬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권기반 서비스 실천 환경 조성'을 주제로 교재를 선정하여 자체 스터디를 진행하고, 민들레공동체 이병훈 원장님을 초청하여 '탈시설 이슈와 장애인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로 비롯되는 장애 당사자의 권리 침해, 탈시설 정책에서 말하는 거주전환 및 자립지원의 한계와 인권침해 요소에 대해 세세하게 짚어보며 생각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시설 간 교류를 위해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둘다섯해누리로 기관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장애인 복지 선진국의 모범 사례를 배워가며 가정보다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개별화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둘다섯 해누리의 운영 철학은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일평생 장애인 복지 현장을 지켜오신 동행 김홍용 대표 이사와 둘다섯해누리 이기수 원장(요아킴 신부)은 거주시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참 동안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2023년 사회복지법인 동행 사회복지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깨어 있는 사회복지사, 행동하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떠나요 제주도 ♪

글 김경인 (송정인더스트리 직원)

코로나로 오랫동안 미뤄졌던 송정인더스트리 근로장애인 직원 연수. 매년 떠나던 직원 연수를 못가 그동안 아쉽고 답답했는데 드디어 올해는 제주도로 미뤄왔던 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날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여행지에서 입을 옷을 새로 장만하고, 가방, 모자, 선글라스도 새로 구입해야 해서 여행 한 달 전부터 분주했습니다.

출근하면 모두 연수 준비는 잘하고 있는지, 뭘 샀는지 이야기하느라 즐거웠습니다.

제주도의 멋진 자연 풍광을 보는 것도 너무 좋았지만, 동료들과 어울려 신나게 놀고, 맛난 음식 먹으면서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들이켜는 그 맛. “카~~ 이런 게 여행의 참맛이지~”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일상을 벗어나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동료들과 함께 신나게 즐기며, 다시 돌아온 일터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득 충전해서 돌아왔습니다.



나눔 릴레이

나눌수록 더해지는 기쁨을 아는 소중한 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유한기술(주)(대표 장승혁)이 회사의 성장을 지역사회의 가장 어려운 곳에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민 곳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입니다.

지역사회를 생각하고 제안해 주신 김준일 본부장님, 그 생각을 지지하고 지원해 주신 장승혁 대표님, 유한기술의 모든 직원분들께 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동백원

4월 14일 이른 새벽, 동백원의 막내 들킨이는 경기도 안산으로 향했습니다. 맞춤 다리 보조기를 제작하러 나선 길인데요. 왕복 이동 거리에 보조기를 맞추는 과정까지 더해 지칠 법도 한데 들킨이는 오히려 씩씩한 얼굴로 동행한 사회복지사에게 힘을 줍니다.

14살, 한창 성장기인 들킨이에게 잘 맞는 보조기가 필요하다는 말에 들킨이의 든든한 결연후원자 김혜경 님께서 제작비용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열흘 후 들킨이의 보조기가 도착했다는 말에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후원자님께서서는 “들킨이가 무럭무럭 성장하는 모습만으로도 대견하고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들킨이는 오늘도 인연의 소중함을 느끼며 씩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스치면 인연, 스며들면 사랑

10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늘 '동행' 해주시는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아동과 장애인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동행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결같은 그 마음에 늘 감사드립니다.

2023년 4월 ~ 6월에 5주년, 10주년, 15주년, 20주년, 25주년을 맞이하신 분들입니다.

25주년 (3명)

김도경 송주석 장종찬

20주년 (8명)

김현정 김호성 박상현 윤형신 이정연 정경석 정창성 조기주

15주년 (7명)

김병근 김설빈 김순엽 박미선 박세완 이현숙 장양익

10주년 (24명)

강경숙 강대수 강울림 강 풍 김근아 김수정 김수지 김승재 김재황 김해옥 박규서 박시영 신상일 안상현 오송남 왕승호 유진숙 윤영구 이강용 이은화 이진욱 임성주 장우태 전남식

5주년 (33명)

강상석 김미정 김민석 김재관 김정현 김진규 김혜랑 문종민 박성호 박세준 박소연 박영록 박재훈 서정철 설용배 송귀자 윤나래 이길중 이선희 이윤정 이철근 이홍석 임지향 장지훈 정동석 정한일 조승래 주석만 최길순 홍기석 황상호 황철수 서광타일

후원 첫돌을 감사드립니다. (135명) 소중한 나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2년 4월~6월에 후원을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강동호 강재황 고대권 고영기 고 옥 고은별 고종화 고종화 고춘주 곽순희 권영옥 권은아 권은애 김경미 김경심 김경아 김경완 김경준 김다선 김미선 김미아 김민지 김선순 김성민 김승우 김승하 김애숙 김영림 김영수 김영아 김영우 김윤정 김인숙 김장현 김정순 김종근 김진희 김태영 김태우 김하영 김하은 김향진 김호영 남경란 문요셉 박근영 박송월 박숙희 박옥이 박용남 박인혜 박종이 박주현 박지인 박충현 박현아 박현준 박혜림 변이규 변정규 변지연 서양수 서예재 서정구 서현숙 소애란 손형래 신선봉 신성현 신행리 심규현 심지원 안비아 안상현 안정국 오승희 우명호 우영훈 윤서연 윤수빈 윤 청 윤효빈 이대선 이세영 이아윤 이윤경 이정실 이현희 이혜민 이효선 임미정 임상태 임주영 임주는 임준섭 임중연 임재민 장예림 장준수 장호영 전성원 전소현 전예림 정민덕 정삼철 정선여 정용길 정용훈 정종은 정진선 정재경 정현미 조은숙 조현욱 채수현 최경호 최병준 최선희 최성규 최정심 피재규 한승효 한정희 한준섭 허윤옥 허종임 홍성수 황갑식 황진희 (유)삼보특수 여수상회 우석홀딩스 중앙ENG 중앙가스

23년 3월 ~ 23년 5월 신규후원자 (83명) 소중한 인연이 시작되어 정말 기쁩니다.

강명숙 강민호 강병권 강서연 강현순 강현철 고은아 김경민 김정은 김근덕 김동욱 김민철 김삼미 김상연 김성주 김연수 김영석 김영희 김은미 김재동 김지애 김춘자 김태근 김태준 김향신 김혁주 김현수 김화자 김희경 나일성 남인숙 문종수 박민수 박석근 박석봉 박정준 박주연 박준서 서숙희 서준희 선연수 손우준 손우진 신보람 신 일 양용호 양재명 우상미 유강산 유미순 유인아 유지학 이나진 이단요 이보규 이소윤 이수빈 이승훈 이지훈 임성주 임은경 임지는 정민우 정영명 정일용 조미라 조소영 조인서 조현준 지하나 최순옥 최의정 최준호 최하진 한승수 허문희 현승중 황창주 좌오뜨오엔 (주)경일에프비 (주)이레목재 (주)해양항만연구소 착한빵집

23년 3월 ~ 23년 5월 더 큰 사랑을 결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액후원자 (4명)

고춘주 10,000원 → 20,000원 김명희 10,000원 → 20,000원 김 정 5,000원 → 10,000원 이현중 10,000원 → 20,000원

직원동정

장기근속자 (2023년 6월 기준)

- 20주년 안경실(꿈을키우는세상)
- 5주년 김종근(꿈을키우는세상), 오희환(송정인더스트리)

배움의기쁨

- 03/17 전남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콘텐츠 제작 및 홍보교육 (가나현 박은아, 임승원, 주원주)
- 04/11~1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ESG 전략 수립과 평가 실무(고급) 1차 (동백원 황운옥)
- 05/10~12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거주시설 직원 인권교육 '발달장애 행동읽기' 교육
(동행빌리지 이대용, 이루리1호 이정란, 언젠가는1호 김금순)
- 05/11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중간관리자 과정 '협력 잘 되는 팀을 만드는 팀장 스킬' (삼혜원 김지성, 박은미, 박홍의)
그 외 26개 교육에 67명의 직원이 참여했습니다.

수상의기쁨

- 03/30 제17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 여수시장상 이현미(동행빌리지)
여수시의회의장상 김지성(삼혜원)
여수시사회복지협회장상 황운옥(동백원)
- 04/20 제42회 여수시장장애인의 날 기념 여수시장상 오하나(동백원 활동보조사업기관)
- 04/21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 전라남도지사상 정완선(가나현) 허덕영(동백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상 김진(동백원) 김미정(가나현) 주묘정(동행빌리지)

동행소식



[송정인더스트리] 울진에서 제주도까지

송정인더스트리 커튼 제품은 품질이 우수하고 철저한 A/S로 고객 만족도가 높아, 전국적으로 많은 기관들에서 찾아주십니다. 올 4월에도 울진, 울산, 나주, 광주, 제주도 등 전국 이곳저곳을 다니며 주말도 반납하고 열심히 판매,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직원들이 있기에 근로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제주도 연수와 같은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송정인더스트리 직원들은 늘 몸은 힘들지만, 장애인들이 직장을 가지고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으로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송정 커튼 구입 문의 : 061-659-5999 | www.sjblind.com

동행소식



[가나현] 3/14~16 생애 첫 제주도~!

설레는 마음 가득 안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 곳은 제주도. 가나현 우프학교 학생들이 제주도로 2박 3일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모두 제주도 여행이 처음이었다는 것. 행복 가득했던 수학여행을 지원해 주신 금호미쓰이화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룹홈] 4/1엄마와 김밥 싸서 봄 소풍!

벚꽃이 만개하고 따뜻했던 봄날! 엄마의 정성 가득한 김밥도시락을 들고서 하동 벚꽃길과 낙안민속마을로 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다리가 아픈 엄마를 위해 손을 꼭 잡아주는 아들. 맞잡은 손이 봄날만큼이나 따뜻했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동백원] 4/4~5 우리들의 단합대회

햇살 좋은 봄날, 좋은 사람들과 추억을 쌓기 위해 여자 입주자분들이 의기 투합하여 순천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낙안읍성에서 그네를 타며 춘향이가 되어 보고, 사극에서 보았던 장면을 재연하며 하루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복하게 잘 지내요!”



[활동보조사업기관] 4/7 꽃보다우리

재가장애인과 활동지원사 130여 명이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4년 만에 봄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점심식사 후 국가정원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출이 어려운 이용자들이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 안부를 전하고 웃음꽃을 활짝 피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동행빌리지] 4/8 전남보치아연맹 신규심판강습회

2023년도 제1차 전남보치아연맹 신규 심판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현역 보치아 선수이자, 오랜 활동으로 경험이 풍부한 옥준 님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결과는 심판 자격증 획득! 보치아 선수에서 심판까지! 좋아하는 활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옥준 님을 응원합니다.



[동행빌리지] 4/15은기님의 실외인공암벽도전!!

실내 클라이밍을 주로 하는 은기 님이 이번에는 클라이밍 동호회원들과 함께 순천 팔마 인공 암벽장에 다녀왔습니다. 실외는 처음이라 걱정했는데, 그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차분하게 한발 한발 내딛으며 멋지게 성공하였습니다. 은기 님의 멋진 클라이밍 활동을 기대합니다!



[가나현] 4/20 명례네 문방구 개업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 '명례네 옛날 문방구'를 개업했습니다. 추억의 오락실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게임장, 예스러운 문구류와 이색 화분들, 그리고 문방구의 최애템, 종이킵 라볶이까지! 종이킵 라볶이는 가나현 식구들에게 최고의 행복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동행주간보호센터] 5/3~4 숲에서 놀아요, 신나는 자연여행

산림복지진흥원 지원으로 장성숲체원에서 1박 2일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초록빛 울창한 숲에서 신비로운 나무의 비밀 알아보기, 편백열매 반지 만들기, 자연물을 이용한 게임을 하다보니 하루가 순삭. 처음 접하는 카프라 쌓기 활동으로 하나가 되어 멋진 집을 완성하는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동행소식



[꿈을키우는세상] 5/8자랑스러운우리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근로장애인분들과 카네이션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감사 편지와 함께 부모님들께 전해드렸습니다. 행복해하시는 부모님들의 미소를 보니 참 뿌듯합니다.



[동백원] 우리들의 일보전진!

매주 수요일 보행 훈련을 위해 지정된 거리를 걷는 준영 님, 철용 님, 영상 님. 걸음 수와 소요 시간을 측정하며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데요, 한걸음 한걸음 천천히 옮기던 걸음이 어느새 안정된 걸음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발걸음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삼혜원] 올여름을책임질시원한아이스크림~

냉장고 가득 수북이 쌓인 아이스크림을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삼혜원은 무더운 여름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용호기계기술에서 아이스크림이 떨어지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기로 했거든요. 하교 후 참새가 방앗간을 들르듯 아이들이 다녀간답니다. ㅎㅎ



[삼혜원] '마음챙김' 집단상담 프로그램

기아대책 기대플러스 사업으로 중고등 아동들의 심리 정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음 챙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강점 개발로 건강한 자립에 한 발짝 다가서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2023년

동백원생활관 새로짓기!



장애인들이 사는 집,
동백원에는
오랫동안 꿈꿔온 소망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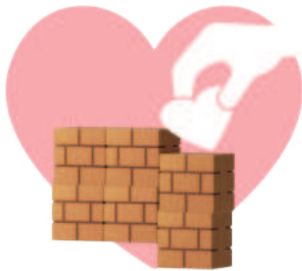
지금 살고 있는 우리집은,



겨울이 오면 동파 걱정, 난방비 걱정,
비가 오면 누수 걱정,
이제는 지진까지 걱정되거든요.



고치고 고치다보니
이제 더이상은 수리가 안된대요.
(2022년 안전진단 D등급)



우리들은 후원자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벽돌 한 장으로 도움을 주세요.



후원자님과 함께 지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후원계좌 : 농협, 301-0232-5026-01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동행)